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0년 1월 1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 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새3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 번 시편(Psalm) 8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히브리서(Hebrews) 1:1-3	이동숙 집사
찬 양 Anthem	“시편 8 편(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대
설 교 Sermon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Speaking to Us by His Son)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찬 송 Hymn	101 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새80)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34 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새38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우리는 사랑의 근원되신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인 이웃보다, 우리의 이기적 생각과 세상적 안락함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집착을, 배려가 아닌 주장을, 섬김이 아닌 우리의 교만을 드러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소서.”
 더 이상은 익숙함과 식상함에 젖은 타성이 아닌,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돌이키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눅 10:2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글개역 **히 1:2**)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and through whom he made the universe.” (NIV **Hebrews 1:2**)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9 (주일)	1/20 (월)	1/21 (화)	1/22 (수)	1/23 (목)	1/24 (금)	1/25 (토)
	창20	창21	창22	창23	창24	창25	창26
본문	마19	마20	마21	마22	마23	마24	마25
	느9	느10	느11	느12	느13	에1	에2
	행19	행20	행21	행22	행23	행24	행25

수/요/찬/양/집/회 토/요/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1/22 오후7:30)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민3:11-16, 49-51)
토요 새벽기도회(1/25 오전6:30)	“세례의 의미와 효력”(롬6:1-7)

지난 주일(1/12) 말씀 (문은배 목사, 차타누가 한인장로교회)

“흔들려도 이 길을”(요 21:15-19)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주님 부르심에 따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를 때가 있고, 여러 이유들로 깊은 침체와 낙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며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재회와 대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비록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하여 도망쳤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그것 밖에 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은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새로운 사명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결국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집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이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주님은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라고 권하는 분이십니다.
 “흔들려도 이 길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메/모